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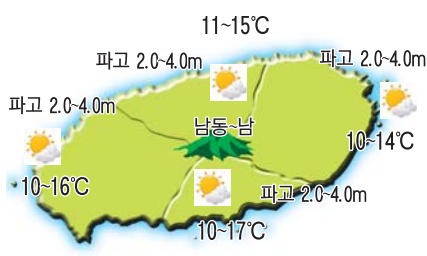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5일 월요일 음 2월 24일 (1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흐린 날씨로 시작해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10-11°C 낮 최고 기온은 14-17°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for Jeju.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보통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for Jeju.

월드뉴스

대만 최악의 열차 사고로 51명 사망

496명 탑승... 사상자 더 늘 듯

대만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사고로 기록될 타이부거 508호 열차의 사고로 현재까지 5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 사고 현장에 투입된 대형 기중기.

4일 연합뉴스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왕귀차이 교통부 차장(차관)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열차 사고로 51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선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사고 열차와 부딪히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왕 차장은 2일 오전 9시 13분쯤 동부 화롄행 204호 열차가 사고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다면서 이후 사고가 발생한 9시 28분까지의 15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전날 사고 열차에 여행객 492명, 기관사 2명, 열차 차장 1명, 청소부 1명 등 총 496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수습하지 못한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고를 유발한 트럭이 소속된 공사 시공업체와 공사 발주처인 철도관리국(TRA) 공무원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시공업체의 과실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명절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9시 28분(현지시간)쯤 대만 북동부 화롄의 다칭수이 터널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김성훈 편집부장

모임 회원 중 한명이 얼마 전 나에게 닳뉘리를 했다. 그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최근 신문을 읽다보면 속에서 열물이 난다"고 했다.

이젠 정말 꿈이 돼버린 '내집 마련의 꿈'

있음에 더욱 비참해진다고 했다.

최근 제주지역 집값을 보면 지인의 닳뉘리가 사회를 향한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불평불만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때 써낸 분양가로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제주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이 우려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나에게 닳뉘리를 한 지인처럼 제주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집을 마련하는게 정말 불가능할까? 2020년을 기준할 때 제주지역 총 주택은 25만3700호이다. 이중 11만3000호는 자기집이 아니란다.

한 명꼴(44%)로 비정규직이다.

극단적으로 9억원대 아파트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연동과 노형, 아라동 등 제주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려면 제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최소 15년 정도는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오즘 집값 흐름에 따라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폭등해 불만이고, 집 가진이들은 세금 때문에 불만이다.

열린마당

치매어르신들 범죄예방순찰대가 지킨다



김문석 서귀포경찰서 범죄예방순찰대장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어르신들의 실종·가출신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도 약 13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달해 제주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겠다.

"제주안심코드 있어요?"라고 문의하자



변희정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가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쳐 실종,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우리 경찰은 치매어르신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애인이나 치매어르신들이 실종됐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의 방문 동선과 접촉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제주도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동 방문 신청,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 관련부서,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의 수고와 홍보로 많은 사업장에 제주안심코드가 설치될 수 있었다.

치매어르신들은 인지능력이 감소해 자주 드나들던 집도 찾지 못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자식들조차 알아보지 못해 길을 잃고 헤매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제주안심코드는 확진자와 접촉자 정보 요청에 대한 절차와 시간이 절약돼 n차 감염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시스템이다. 제주안심코드가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나, 사장님, 그리고 방역당국이 함께 만들어가자.

치매어르신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 시 가족들끼리 찾아 다니지 말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가는 곳마다 제주안심코드를 접할 수 있고, 사업장 4만여 개소와 사용자앱 설치 건수도 40만 건에 이르고 있다. 갖은 노력으로 사업장과 이용시설에 제주안심코드가 설치됐지만, 문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안심코드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당이나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Insurance, featuring a representative and product details.

Advertisement for Boraflower, a national flower delivery service, featuring various plants and contact information.